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2021. 12. 29.(수) 14:00
2. 장소: 대학원별관 1층 윤세영홀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10	차미희*, 김명화, 원용진, 배성아, 유제욱, 박수정, 이희주, 남상택, 이정화, 오숙환	신태섭(간사)
불참인원	2	박영미**, 김정권	

* 의장 **부의장

4. 안건

- 제1호의안: 2021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2학년도 예산안 자문
- 제2호의안: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5. 개회선언

- 가. 간사는 대학평의원회 운영세칙 제2조 ‘대학평의원회 정기회는 매년 4월과 12월에 개최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회의는 12월 정기회임을 안내하다.
- 나. 김정권 평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였고, 김명화 평의원이 정각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지만, 재적 평의원 과반이 출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하다.
- 다. 의장은 전체 평의원 12명 중 9명이 참석하여 과반 출석으로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6. 안건 자문 및 심의

가. 자문사항

- 제1호의안: 2021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2학년도 예산안 자문

- (1) 의장은 제1호의안 2021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2학년도 예산안 자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화의료원, 학교 예산안 순서로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하다. 안건 설명을 위해 이화의료원 및 본교 기획처 예산팀에서 배석해 주셨음을 알리고, 배석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이화의료원 배석자: 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팀장, 목동병원 재무팀장, 예산파트장)

- (2) 전략기획팀장은 의료원 전체 현황 및 목동병원과 서울병원의 예산 대비 진료 실적을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보고한 후 배부자료 추가설명을 진행한다.
- (3) 의장은 목동병원 추경예산 지출부분 관련하여 본교 의학연구동을 5년 분납으로 매각을 진행하였는데, 2021년 추경예산 고정자산에 일시불로 158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4) 전략기획팀장은 매입비용은 158억이지만 5년 분납예정으로 목동병원 수입부분 고정부채에 장기미지급으로 94.9억이 책정되어있으며, 2021년 30억은 기 지급 완료하였고 차기이월자금으로 책정한 307억에는 2022년도 상환예정금액 33억이 포함되어있다고 설명하다. 즉, 2021년 추경예산에는 63억이 반영되어있고 나머지 금액은 3년에 걸쳐 납부 예정이며, 2022년도 본예산 지출부분 고정부채 장기미지급금 상환금액 32.4억이라고 표기된 것은 2023년도 지급될 예산을 2022년도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5) 의장은 추경예산에 대한 자문을 할 때 회의 당일 설명만으로 이해한 후 검토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질문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회의 시작 전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기획처에서 고려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의료원 현황발표 중 서울병원 개원 이래 여러 측면에서 2배의 성과가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본교와 병원간의 전입·전출금에는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지 설명을 요청하다.
- (6) 전략기획본부장은 5년간 병원에서의 전출금을 유예 받았고 현재 본교로의 전출금은 예산에 없으며, 한해 전출금은 178억 정도이며 2023년부터 100% 전출금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목동병원과 서울병원이 예산대비 100%이상의 수입을 내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중이라고 설명하다.
- (7) 의장은 2021년 본교 추경에 따르면 병원 전입금이 2억인데 2023년부터 전입금 178억이 가능할지 설명을 요청하다.
- (8) 전략기획본부장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2020년 예산대비 2021년 예산을 820억(목동병원 288억, 서울병원 532억) 증액하였고, 2022년 2월까지 140억의 추가예산을 달성하여 960억 정도 예산증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며, 예산을 달성하는 이유가 전출금을 보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하다. 2022년 예산은 960억원을 증액한 예산에서 추가로 520억을 증액하면 총 6,000억 예산임을 언급하며, 6,000억의 수입을 실현했을 때 인건비 비율이 낮아지면서 2023년 전출금 178억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다.
목동병원의 경우, 여성암병원에 이어 2022년 개원 예정인 비뇨기병원이 목동병원의 새로운 브랜드가 될 것이며, 현재 목동병원의 수익을 150~200%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우수 의료진을 추가 투입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수가를 최대화하여 시술과 수술을 늘릴 계획임을 알리다. 동시에 임상시험센터를 2.5배 확장하여 현재 약24

억~28억인 연구수익을 2년 뒤 60억으로 올리면서 연구수익과 여성암병원, 비뇨기병원을 중심으로 수익을 올리겠다고 말한다.

서울병원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위중증환자15병상, 중증환자30병상 포함 165병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국가운영지원금을 약300~400억으로 예상하고 있어, 거점병원으로의 운영은 흑자로의 전환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신경과, 뇌혈관센터를 중심으로 2019년 개원 후 신경과의 수익이 5억에서 현재 23억으로 증가했으며, 고위험산모·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개원 2년 만에 1,000명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실 가동률 100%를 달성하면서 2020년 10월 4병상을 오픈하며 월1,400만 원이었던 수익이 2021년 11월 기준 4.6억으로 늘었음을 말한다. 응급센터의 경우 전국 평가 1위의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목동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월1,500명이었던 응급환자 진료 수가 월4,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인종양센터의 로봇수술 경우 올해 519건으로 전국 로봇 수술 장비 대당 최대 실적을 세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내년도 추가예산을 수립하고, 초과하여 예산을 달성하는 것이 2023년 학교로 전출금을 부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한다.

- (9) 김명화 평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서울병원 입원환자의 병상을 늘려서 수익을 늘린다고 설명했는데 데이터상 일평균 입원 환자수가 증가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며, 병상을 늘리는 목표가 실현가능한 것인지, 그 시점이 2022년이 되는 것인지를 질의하다.
- (10) 전략기획본부장은 2021년도 병상은 늘었다고 답하다. 이어 최초 2021년 목표는 850병상이었으나, 당시 전공의가 없는 병원이 가지는 상황의 특수성이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설명하다.
- (11) 의장은 전공의가 없는 병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병원운영이 가능한지를 질의하다.
- (12) 전략기획본부장은 현재는 전공의 없이 교수님들이 모든 업무를 해결하고 있으며, 교육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야 인턴, 전공의를 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신설병원의 경우 진료실적 등 조건이 충족된 후 인턴 배정을 시작으로 전공의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서울병원은 2021년 인턴 3명을 배정받았고 2022년 전공의 9명을 배정받게 되었으며, 전공의수련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현재 약 190명(치과전공의 포함)의 인턴 및 전공의가 있는 목동병원에서의 서울병원 파견근무도 불가한 상황임을 설명하다.
- (13) 남상택 평의원은 3명, 9명을 받게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대학병원의 인원으로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14) 전략기획본부장은 병원실적 등에 따라 수련평가위원회에서 병원별로 지정을 해준다고 설명하며 국제성모병원이 오픈 5년 만에 전공의 1명을 받은 것을 예로 들어 전공과별로의 의사수를 조절하며 전공의 수를 나눠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신설병원으로 전공의를 파견하려면 타 병원에서 1-2명의 전공의를 내놓아야 전공의 파견이 가능하고 신설병원이 많아지면 전공의를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교원수·연구성적 등의 평가에 의거하여 과

별로 인원을 배정받게 된다고 하면서 몇 개 과를 제외하고 2022년 수련평가에 모두 통과했고 그 중 가정의학과가 2명이고 나머지는 1명씩 배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다. 이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병상확장계획이 미루어지게 되었고 2022년도에는 병상가동률을 올리 기보다는 안정화하는 것으로 세웠으나, 거점병원이 되면서 생각보다 병상가동률이 빨리 확보되게 되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하다.

- (15) 원용진 평의원은 신생아사건 이후 회복된 것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16) 전략기획본부장은 이후 전화위복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였으며 서울병원의 오픈이 새로운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다.
- (17) 원용진 평의원은 2~3년 전과 비교하여 최근 웰니스건강증진센터에 외부인이 많아졌다는 느낌을 전달하다.
- (18) 전략기획본부장은 2019년 목동병원과 서울병원 양병원에 검진센터를 운영하다가 현재 운영팀이 들어오면서 2020년 초 3-4개월만에 목동병원 검진센터를 닫고 서울병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23억 줄이고, 2019년 약 60억의 수익이 올해 120억 가까운 수익을 달성했다고 설명하다. 단체검진보다 일반검진이 많아지면서 웰니스건강증진센터가 마곡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있다고 설명하다. 이어 마곡 산업단지 내 많은 기업들의 검진센터로 인기가 많아 내년 150억의 수익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확장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하다.
- (19) 의장은 안도를 표하며, 의료원과 관련해서 지난 5~6년간 많은 고생과 노력을 했다는 점을 교수평의회 의대교수님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며 2021년 추경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의 학교 적립금부분에서 의료원에서 학교로 들어오는 전입금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배석자: 기획처장, 기획처부처장(예산), 예산팀장)

- (20) 기획처장은 이화여자대학교의 2021학년도 추경예산안과 2022학년도 예산안을 보고하다.
- (21) 배성아 평의원은 추경예산과 내년 예산안의 원금기금이 임의기금으로 이관된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22) 예산팀장은 임의기금의 잔액이 충분하면 원금기금까지 인출할 필요가 없는데, 임의기금의 잔액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목적의 원금기금에서 임의기금으로 적립을 한 후 임의기금 상태에서 학교사업목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다.
- (23) 원용진 평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기금별 적립 및 인출 내용에는 학생들의 등록금수입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하다.
- (24) 예산팀장은 등록금 수입과는 별도로 적립된 기금에서 인출하여 학교사업부분을 충당하

고 있다고 답변하다.

- (25) 기획처장은 학교가 4,000억 정도의 예산안으로 운영하고 있고, 6,000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4,000억의 예산 중 매년 학교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적립하도록 관련법상 되어있다고 말한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하여 추후 교육건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의 건축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액 적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는 기금을 일부 인출하여 학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감가상각비 적립대상액 중에 일부만 적립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 의료원에서 전입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다.
- (26) 의장은 의료원에서 2023학년도에 학교로 178억원을 전출한다고 설명하였고, 본교에 178억원이 전입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 (27) 기획처장은 의료원 전입금이 들어오면 기금으로 적립이 가능하게 되어, 기부금과 별도로 매년 활용이 가능하게 되며 의료원의 운영과 대학원의 충원율이 좋아지면 학교의 재정건전성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다.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병상수를 늘렸기 때문에 의료원 운영 정상화가 최대한 빨리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한다.
- (28) 김명화 평의원은 2022학년도 예산안 연구비 계정에서 Ewha Frontier 10-10 사업 등을 반영하여 20억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 1개팀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다.
- (29) 기획처장은 해당 금액은 연구비 계정만이며 인건비, 교내·교외 장학금 등 계정별로 분포되어 있다고 답변하다.
- (30) 배성아 평의원은 그동안 대학평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기금이 감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원금기금은 보전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상당한 금액을 임의기금으로 이관하는 상황을 보며 한정된 수입으로 전체를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모성 경비 등을 긴축하여 향후 원금기금까지 인출하지 않도록 운영을 당부하다.
- (31) 기획처장은 원금기금이 이관된 부분은 의료원에서 2023학년도부터 매년 병원전입금이 입금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의료원에 대한 투자는 30~40년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년 이후 개선되길 기대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하다.
- (32) 배성아 평의원은 2022학년도 기부금 예산이 178억, 2021년도 기부금 예산이 176억으로 당선 시 기부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였는데, 기부금에 대한 예산차이가 거의 없음을 말하며 적극적인 기조가 보수적으로 바뀐 것인지 질의하다.
- (33) 기획처장은 2020학년도 기부금 예산 176억에서 2020학년도 결산금액은 103억이었고 올해 약 200억원으로 작년 결산금액의 두 배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며 평소 기부금 보다는 금액이 2배 정도 증가되었다고 생각하며 2022년 기부금 예산은 보수적으로 편성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결산 내용으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답하다.
- (34) 유제욱 평의원은 의료원 보고 시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만 설명하는데, 수치상으로 전기

이월자금이 계속 마이너스인데 계획대로 의료원에서 전입금이 들어올지 학교에서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문의하다.

- (35) 기획처장은 올해 의학관을 158억원에 매각하고, 매년 약 30억 정도의 금액을 5개년 분납으로 전출을 의료원이 협의하였고,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의학관에 비뇨기병원을 만들고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의 운영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기는 약 10여년이 걸리겠지만 마이너스여도 운영이 나아지면서 전출금 납입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시점이 2023년일 수는 없겠지만, 전출은 계획된 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학교와 의료원이 서로 응원 및 지원하는 관계로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학교가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답변하다.
- (36) 기획처부처장(예산)은 매월 보고받고 있으며, 서울병원은 계속 적자이지만 적자폭이 축소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목동병원은 최근 흑자로 전환되었고, 앞으로도 병원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고 말하다.
- (37) 남상택 평의원은 학교보유 아파트 2채의 자산 처분계획에 대해 질의하다.
- (38) 기획처장은 학교 자산 중 일부인 아파트 2채이며, 그동안 외국인교원·학생 임시숙소 사용 등을 위하여 보유하였지만 비교육용 자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상당한 보유비용과 내부감사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매각하기로 결정했음을 답변하다. 그 외 학교 보유 토지 중에서 은지리의 경우에는 장이권 교수님이 양서류·파충류 등의 생태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시고, 고사리수련관이 있는 괴산군은 충북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괴산군, 충북연구원과 공유혁신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말하며, 고사리수련관의 숙소를 리모델링하여 숲체험 프로그램 등의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동문들이 쓸 수 있고, 본교 ROTC 훈련 장소로 사용하는 등 12만평 전체를 교육용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내년도 대학평의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다.
- (39) 오숙환 평의원은 고사리수련관의 건물외관은 상당히 멋진 상태임을 말하다.
- (40) 기획처장은 동의하며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외관은 유지할 것이며, 학생들을 포함하여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모색 중임을 설명하다.
- (41) 김명화 평의원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욕실 문제임을 말하다.
- (42) 오숙환 평의원은 김옥길 교수가 기부한 금란서원의 운영상태를 질의하다.
- (43) 기획처장은 금란서원은 별도 리모델링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금란서원의 주변 시설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44) 의장은 학교의 2021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2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 (45) 남상택 평의원은 예산안을 회의 전에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병원의 예산관련 자료도 본교 예산팀 자료처럼 정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 (46) 박수정 평의원은 추후 예산안 자문 진행 시 마이크 사용을 통해 발표 전달력을 높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다.

나. 심의사항

□ 제2호의안: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배석자: 기획처장)

- (1) 의장은 제2호의안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안건 설명을 위해 기획처에서 배석했음을 알리다.
- (2) 기획처장은 안건에 대해 설명하며, 학칙 개정안 2번은 교육부 승인절차 후 2022년 2월 확정되며, 1번은 2022년 1월 이사회 후 확정됨을 안내하다. 지난 대학평의원회에서 보고했던 발전계획 이화비전 2030+ 100개 계획 중 30~40%는 1차년도에 실행하였고, 앞으로도 결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응원을 바란다고 말하다.
- (3) 김명화 평의원은 편입학정원이 40명 정도 남아 있는데, 자연대 내 몇몇 학과는 40명이 빠지면 2년 뒤 교수보다 학생이 작아져 과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설명하다. 또한, 단계적으로 복학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기획처장의 설명대로 2년 내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며 완전히 해결하는 데 최소 3~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편입생이 없으면 운영이 되지 않거나, 편입정원을 줄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특정학과의 경우 대학원 충원에도 문제가 있어 본부에서 신경을 써야함을 지적하다.
- (4) 의장은 편입학정원으로 인공지능전공을 신설할 때부터 반복하여 우려했던 사항이며, 본부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 진행했던 부분임을 말하다.
- (5) 기획처장은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학교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업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심력 있는 학생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임을 설명하다. 일부 학과처럼 약대 때문에 편입학이 많은 경우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다른 학과들의 경우에도 학교차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하다.
- (6) 김명화 평의원은 약대 6년제로 돌아가서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다. 일부 학과의 경우 호크마교양대학 자유전공으로 입학해서 2학년 중 과반수 정도 휴학 중임을 설명하다.
- (7) 기획처장은 호크마교양대학 자유전공으로 전공을 선택할 때 약대 편입이 없다면 편입을 목적으로 입학할 학생들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어 현재의 상태는 1~2년 후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다. 그 외 약대와 무관하게 학업중단이 일어나는 전공들의 문제는 학교에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학교가 계속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 (8) 이희주 평의원은 대학원에서 논문대체제도가 생겨서 졸업하는 부분 관련하여, 논문을 쓰지 않고 수업을 대체하는 취지는 좋지만 학기 중에도 수업이 충분히 개설되지 않아 해당 제도 활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음을 설명하다. 논문대체제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각 과에서 해당 트랙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수업개설에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다.
- (9) 기획처장은 대학원의 적절한 학생 수가 운영되지 않으면 수업개설이 안되고 최소한 운영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학과운영이 원활하기 때문에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과 관련하여 학교와 학과에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설명하다. 일반대학원은 전공에서 정하게 되어 있고 특수대학원은 학교에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관련 학과와 교무처에 이희주 평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전달하여 방법을 찾겠다고 말한다.
- (10) 박수정 평의원은 학칙개정안(1) “마”항의 「기독교와세계」 관련사항이 약대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11) 기획처장은 3학년 편입의 경우 「기독교와세계」 관련 타 학교 출신을 위해 만든 조항이므로 1학년 입학생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답변하다.
- (12) 박수정 평의원은 대학원 학칙개정안 중 사범대학 이과계열 중 수학교육과 외에도 과학교육과도 있는데 왜 그동안 수학교육과의 수여학위명이 문학석사·박사였는지 질의하다.
- (13) 기획처장은 학위명은 해당 학과별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해당 학과 교수님들의 합의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사항이며, 학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통일해서 변경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다.
- (14) 의장은 추가 질의가 없으면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심의를 종료하다.
- (15) 간사는 참석 예정이었던 박영미 평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지만, 성원 구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은 자문 및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

2021년 12월 29일

의 장 차 미 희

차미희 